

김정렬 차관, 철도, 버스 등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지시

인덕원역 현장점검 및 교통시설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회의 개최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(목) 오전 9시, 4호선 인덕원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역사 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.
 - 이어 국민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, 지하철, 철도 등 대중교통과 지하역사,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통해 교통시설·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.
- 인덕원역을 점검한 김차관은 “인덕원역 지하역사 공기질 스마트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청정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, “진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공기질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”을 주문했다.
 - 아울러, 철도역사·터미널, 열차·버스 내 적정 냉난방 온도기준 운영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.
- 또한, 김차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8개 철도운영자, 전국버스·터미널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하면서, “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버스·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터미널·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더욱 특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”하며,

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, 승객들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19. 3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